

국제사회와 'AI 민주정부' 비전 공유 및 주요 거점국가와 AI 협력 확대

- 유엔무역개발기구(UNCTAD) 「eTrade for all」 10주년 기념행사에서 'AI 민주정부' 추진전략 발표
- 세르비아와 AI 기반 공공서비스 전환 고도화 논의
- 이집트에 범정부 사절단 파견으로 아프리카·중동 협력 기반 확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민재 차관은 7월 8일(수)부터 7월 15일(수)까지 스위스(UNCTAD), 세르비아, 이집트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에서 김 차관은 유엔무역개발기구(UNCTAD) 「eTrade for all」 10주년 기념행사에서 'AI 민주정부'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세르비아·이집트와 인공지능(AI)·디지털 정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 스위스 방문 : UNCTAD 「eTrade for all」 10주년 기념행사 참석

먼저, 김 차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eTrade for all*」 출범 10주년 기념 고위급 대화에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UNCTAD가 주관하며, 사무총장 직무대행(Pedro Moreno)을 비롯해 에스토니아 법무·디지털부장관 등 각국의 고위급 인사와 국제기구·개도국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다.

* 「eTrade for all」 : 개발도상국이 전자무역과 디지털경제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16년 UNCTAD 주도로 출범한 다자 협력 플랫폼으로 ▲ 정보 허브 운영 ▲ 전문가 네트워크 운영 ▲ 기술협력 사업 지원 등 추진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3년부터 디지털정부와 전자무역 분야에서 UNCTAD와 오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 아울러 이번 10주년 기념행사에서는 한국이 인공지능(AI)·디지털 정부 선도국으로서 공식 초청을 받

아 'AI 민주정부'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핵심 방향인 ▲친절한 정부 ▲함께 하는 정부 ▲유능한 정부를 전 세계에 소개한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UNCTAD 등 국제기구와 인공지능(AI)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 세르비아 방문 : 한-세르비아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성과 점검, 향후 인공지능 및 디지털 정부 협력 강화 방안 논의

이어, 김 차관은 발칸반도의 중심국인 세르비아를 방문해 지난 2020년부터 성공적으로 정착한 '한-세르비아 디지털정부 협력센터'의 성과를 직접 점검하고 앞으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7월 10일(금)에는 슈네자나 파우노비치(Snežana Paunović) 행정자치부 장관과 미하일로 요바노비치(Mihailo Jovanović) 총리실 정보기술·전자정부실 실장(장관급)을 잇달아 면담한다. 양측은 디지털정부 법·제도 개선 등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인공지능(AI)·디지털 정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의 인공지능(AI) 기반 공공서비스와 정부 클라우드 등 한국의 인공지능 및 디지털 정부 경험을 공유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방안도 모색한다.

>> 이집트 방문: K-AI Gov 얼라이언스 사절단 파견, 공공부문 AI 맞춤형 지원

마지막으로 김 차관은 유럽, 중동, 아프리카를 잇는 전략적 거점국인 이집트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작년 11월 이재명 대통령의 이집트 순방시 체결한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양해각서(MOU)의 후속조치로 추진된다. 이번 방문에는 법제처, 국세청 등 6개 기관이 참여하는 K-AI Gov 얼라이언스 사절단이 동행해 공공부문 인공지능(AI) 맞춤형 지원에 힘을 보탠다.

한편 김 차관은 라파트 헨디(Raafat Hendy) 통신정보기술부 장관과 양자 면담을 갖고, 7월 13일(월) '한-이집트 디지털정부 공동협력포럼'을 개최한다. 공동협력포럼에서는 AI정부24,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법령정보 시스템 등 한국의 공공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소개하고 맞춤형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과 유엔개발계획(UNDP)이 공동 주관하는 공무원 인공지능(AI) 역량강화 사업에 이집트의 참여 방안도 협의할 계획이다.

이번 방문은 대한민국의 'AI 민주정부' 비전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범정부 사절단 파견을 통해 AI·디지털 정부 분야의 아프리카·중동 협력을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방문은 대한민국의 'AI 민주정부' 비전과 공공 인공지능(AI)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인공지능(AI)·디지털정부 분야 협력을 확대해 글로벌 인공지능(AI) 격차를 해소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협력과	책임자	과 장	최혜선 (044-205-2781)
		담당자	사무관	전창석 (044-205-2792)

